



저금리 시대 준비하기

외환은행 영업부WM센터 PB팀장 | 김 범 석

지난 1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4월의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5%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작년 9월이후 8개월째 제자리 수준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며, 같은 날 유럽중앙은행(ECB)도 최근 유로화의 강세속에 현행 기준금리 4%를 유지하기로 하여 작년 6월이후 10개월째 계속 금리를 동결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지난해 8월 이후 연 5.25%였던 기준금리를 6차례에 걸친 큰 폭의 인하를 통해 현재 2.25% 수준으로 조정하였으며 앞으로도 한두차례 정도 추가 인하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실정이다. 호주의 경우는 이와는 반대로 오히려 지난 3월 금리를 0.25% 인상하여 12년만에 최고수준인 7.25%에 이르고 있다.

그럼 왜 이와 같이 각국 중앙은행의 행보가 달라지고 있는 것일까?

현재 전 세계 금융시장의 최대 화두는 뭐니뭐니해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문제일 것이다. 미국은 이에 따른 신용경색 문제로 인한 금융위기에 소비위축과 생산둔화로 이어지는 일련의 경기침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적극적인 금리 인하 정책과 유동성 공급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어느 정도의 효과는 거두고 있는듯 보인다.

하지만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인하 정책은 필연적으로 달러의 약세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으며, 그렇지 않아도 블랙홀과 같은 중국의 원자재 수요로 인해 불안하기만 하던



각종 원자재 가격과 유가 그리고 곡물가격을 자극하여 급격한 가격상승을 촉발하였으며 이는 전세계 시장에 엄청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3월 우리나라 생산자 물가지수는 8% 이상 급등하며 1998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소비자 물가지수도 3.9% 상승을 하여 4개월 연속 물가관리 상한선(3.5%)을 웃돌고 있고 더욱이 당분간 이런 추세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의 경우에는 원자재발 인플레이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마땅히 금리인상을 통한 긴축정책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나, 국제 금융시장의 위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경기하강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설부르게 긴축 기조를 유지하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의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는 실정이나, 최근 미국이외에 캐나다와 영국등이 금리 인하의 방향에 동참을 함으로써 향후 글로벌 시장의 대세는 긴축 정책이 아니라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쪽으로 그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예상된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번달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시 물가불안 보다는 앞으로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강하게 표시하는 분위기로 바뀌면서, 당장 5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을까 예상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총선이 끝남에 따라 새정부도 적극적인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부양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도 시기의 문제이지 금리 인하의 방향으로 간다고 보는게 맞을것 같다.

그럼 이 경우 과연 어느 정도까지 금리가 하락할수 있을까?

일본처럼 이자가 전혀 없는 제로금리까지도 갈수 있는것인가?

정확한 것이야 앞으로의 국제금융시장과 제반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겠지만, 과거의 경험을 살펴보면 지난 IMF사태 당시의 살인적인 고금리에서 2000년 이후 본격적인 금리 하락기를 경험했을때의 최저 금리는 2004년11월 당시 기준금리가 3.25%를 기록하였으며 2005년 10월 이후 7차례의 금리상승을 통해 현재 5.0%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럼으로 앞으로의 금리 하락시 예상금리는 과거 저점이었던 3.25%와 5.0% 사이 그 어느점에선가 정해지겠지만 문제는 당시보다 지금의 물가상승율이 훨씬 높아졌다는 데

있다. 즉, 명목금리만으로 놓고 본다면 큰 차이를 느낄수 없을지 모르지만,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율을 감안한 실질금리는 앞으로 큰 폭의 하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럼, 앞으로 이런 저금리 시대가 실제 도래하였을때 과연 개인들의 금융자산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지난 금리 하락기의 시기에 일선 금융기관의 현장에서 근무했었던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금리변동의 흐름에 눈을 감고 그냥 그때그때 금리에 따라 피동적으로 금융자산 운영을 하였던 일반 서민들은 말 그대로 실질적인 마이너스 금리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피해를 보았던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소중한 자신의 금전적 재산을 운영하는데 있어 무조건 타인의 의견에 의지해도 될 만큼 현재의 금융환경은 단순하지가 않다. 오죽하면 재테크라는 말이 생겨났겠는가? 그럼으로 항상 경제흐름의 변화에 대한 정보습득을 게을리해서는 뒤처질수 밖에 없고, 큰 틀에서의 방향을 살펴본뒤 전문가들과의 상담을 통해 금융자산의 운용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그럼 일반적으로 저금리 상황하에서 효과적인 금융자산 관리의 방법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자.

□ 저금리 시대엔 장기형 상품이 우선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단기형 상품으로 가입을 하여 빈번한 교체를 하여야만 올라가는 금리 대비 손해를 보지 않을것이나, 금리 하락시기에는 가능한 장기의 확정금리 상품을 활용하여야 조금이라도 높은 이자를 계속 유지할수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또한 금리 하락기에는 변동금리 보다는 확정금리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므로, 최근 각 은행들이 판매하고 있는 특판 정기예금이나 고금리 후순위채권 또는 하이브리드 증권등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이다.

그렇지만 아무리 장기형 상품운용이 원칙이라고 해도 자신의 자금목적이나 여유기간을 무시한 투자는 향후 유동성의 문제를 가져올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것이다.



□ 대출은 고정금리 보다는 변동금리

앞에서 말한 장기형 확정금리 상품 가입은 여유자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의 원칙이라고 할수있다. 반대로 주택자금이나 사업용 자금등을 금융기관에서 빌려써야 하는 대출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고정금리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보다는 변동금리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이자부담을 줄일수 있는 방안이 될것이다.

하지만 한가지 유의하여야 할 점은 사용하고 있는 대출금을 단기에 상환할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변동금리를 적용받는 것이 금리 하락기에 유리할수 있으나, 주택자금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상환을 해나가야 하는 대출금의 경우에는 비록 당분간은 변동금리가 유리할지 모르지만, 금리라는 것이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을 반복하는 것이므로 후일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오히려 낭패를 볼수가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금리 하락기에는 금융기관의 낮은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자산시장에 투자를 하여 초과이익을 올리려는 레버리지 효과의 유혹이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자칫 이를 잘못 활용하게 되면 그간의 재테크 노력을 무위로 만들어 버리는 결과가 있을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 절세형 상품에 관심

금리가 하락하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아마도 예금이자에 생활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갈수록 받을수 있는 예금이자 금액은 줄어드는데, 조금이라도 이를 만회하기 위해선 사소하게만 생각하던 세금에도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하여야 한다. 저금리 시대 최고의 재테크이자 제일 먼저 챙겨 보아야할 사항이 바로 절세상품의 가입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있는 일이지만, 막상 현장에서 보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한 상황을 자주 접하게 된다..

여기서 절세형 상품의 종류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첫번째로 크게 비과세가 적용되는 상품군과 두번째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우대 상품, 그리고 세번째는 특수한 목적에 따라 비과세와 함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이 추가되는 상품군으로 분류할수 있다.

◆비과세 상품

1. 생계형 저축 : 2008년12월31일까지 가입 가능

만 60세이상(여자 55세)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등의 경우
1인당 3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2. 장기저축성 보험 : 10년이상 유지한 보험공제

3. 소액주주 주식양도 차익

◆세금우대 상품 : 2008년12월31일까지 가입 가능

계약기간 1년 이상의 상품에 한해 만20세 이상 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노인(남자 60세, 여자 55세이상)과 장애인, 독립유공자등은 6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함으로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며 생계형 저축과 마찬가지로 금년말까지만 가입할수 있는 일몰조항이 있는 상품인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적용 세율은 일반과세의 경우 주민세 포함 15.4%이나 세금우대 상품은 9.5%가 적용된다.

◆특수목적 상품

1.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들의 주택마련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상품으로,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85㎡이하 1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 세대원 포함) 소유자로서 세대주이면 가입할수 있으며, 7년이상 유지시 비과세 혜택과 아울러 연간 불입액의 40% 범위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연금신탁(보험)

개인의 노후자금 마련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상품으로, 가입기간 동안의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며 연간 불입액 300만원까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 다만 55세이후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보다는 낮지만 5.5%의 세금 부담을 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주식등에 일부를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기대할수 있는 변액연금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투자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수

노후자금과 같은 장기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목적자금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운영수익율이 중요하다. 안정성에만 치중을 하여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고정금리 상품으로만 운영을 하게 되면 자칫 물가상승률 조차 따라가지 못하게 되어 필요자금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저금리시대엔 다소 원금보장에 대한 변동성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주식과 채권, 펀드 등 다양한 투자형 상품에 대한 이해가 이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2009년을 목표로 하고있는 자본시장 통합법이 시행되면, 한층 더 다양하고 복잡한 금융상품이 출현하게 될것이고,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는 결코 좋은 재테크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 채권형 상품에 관심을 갖자

IMF 사태 이후 우리나라도 채권형 상품에 시가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채권형 상품은 표면에 적힌 금리를 보장받는 것으로 알기 쉬우나, 사실은 주식과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그 가격이 변동하고 있다.

물론 만기까지 보유를 한다면 채권의 쿠폰 금리를 보장받을 수 있겠지만 만기까지의 기간이 최소한 3년이상 장기상품이라는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시중의 금리와 채권의 수익율은 역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앞으로의 금리 하락이 예상되는 시기에는 채권형 상품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초과수익을 올릴수 있는 효과적인 선택이 될수있을 것이다.

□ 주거래 은행 활용 전략

금리가 하락하여 받을수 있는 이자소득이 줄어들수록, 사소한 부분이라도 놓치지 말고 챙겨야 다소나마 그 손실 폭을 줄일수 있을것이다.

금융기관을 이용할때에도 그때그때 조금의 금리 차이로 쉽게 거래하는 은행을 바꾸지말고 가급적이면 주거래은행을 정해서 이용하여야만 그 혜택을 받을수 있다.

요즘은 대부분의 은행들이 고객별 스코어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개인고객들의 실적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예금 가입시에는 보너스 금리를 더해주고 대출시에는 금리 인하를 제공하며 각종 수수료 면제와 환전시 환율우대 서비스 및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특별상품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연락을 받을수 있는 혜택도 있다.

□ 연말정산에도 관심을 갖자

자영업자나 근로소득자와 같이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가계의 경우는 앞에서 설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연금상품처럼 소득공제가 주어지는 상품을 최우선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예금이자를 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줄이는 것이 재테크면에선 훨씬 더 효과적일수 있다.

그럼으로 평소 세금을 줄일수 있는 부분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가능한 지출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하고 기부금이나 의료비, 보험료등 각종 영수증도 미리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금융자산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정말 참기 어려운 인내의 시간의 연속일 것이다. 하지만 선진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을 또다시 이어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야심차게 747계획을 발표하고 연 평균 경제성장률 7%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과 원자재가격 상승의 여파로 그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우리보다 앞서간 선진국의 경우에도 경제가 고도화 될수록 경제성장률은 정체되어 진다는 것을 확인할수 있다.

따라서 낮아진 경제성장률이 일상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예금 금리만 올라간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며, 이제는 낮아진 금리에 적응을 하고 과거와 같이 단순한 방식의 적금이나 예금을 통한 금융자산 관리는 더 이상 유효한 방법이 될수 없음을 기억해야 할것이다.

이런 상황하에서 투자상품(펀드)에 대한 관심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 할수있다. 몇 년전부터 붐이 일기 시작한 적립식펀드의 영향과 작년 전세계 자산시장의 호황에 힘입은 펀드시장의 폭발적 성장으로 이제 1가구 1펀드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렸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 차이나펀드의 광풍에서 알수 있듯이 자금의 여유기간이나 목적, 변동성 위험에 대한 사전 준비없이 그저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무조건 따라가는, 소위 묻지마 투자를 해서는 승산이 없다. 펀드는 높은 수익을 가져다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폭만큼의 손해도 낼수 있는 양날의 칼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그럼으로 언제나 금융시장의 흐름과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상황이 바뀔경우에는 신속한 결정과 판단을 필요로 한다. 그러기 위해선 최소한의 경제 전반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재테크(Financial Technology)라는 용어도 쉬운 말로는 재산을



늘리고 돈을 버는 방법을 뜻하는 것이겠지만, 사전적 의미로는 재무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기술을 지칭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과 기술은 결코 저절로 얻어질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위적인 학습과정을 통해 습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 지식에 관해서라면 막연히 복잡하고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여 지레 짐작하고 포기하려고 하는데, 전문가에게 맡기고 상담을 하더라도 본인이 최소한의 지식이 있어야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수 있는 것이다. 일반인들이 가장 손쉽게 경제지식을 늘릴수 있는 방법으로 매일 경제신문을 꾸준히 읽는 것을 적극 권유해 드리고 싶다.

하늘은 스스로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를 준다고 한다. 똑 같은 경제상황에서 좋은 기회가 오더라도 그 찬스의 활용여부는 결국 본인이 아는 지식 범위내에서 결정될수 밖에 없을 것이다.

끝으로 필자의 경험으로 살펴본 재테크에 실패하는 대표적인 6가지 경우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최소한 이와 같은 행동은 피해야 할 것이며, 이를 반면교사 삼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부자가 되는 그 날을 기대해 본다.

- 저축금액은 적으면서 단기간에 큰돈을 기대한다.
- 수익율과 위험의 상관관계를 무시한다.
- 단리와 복리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다.
- 비과세 또는 절세형 상품을 활용하지 않는다.
- 대출과 예·적금을 병행하고 있다.
- 목표와 관련이 없는 상품에 가입한다.

